亞·太지역 國際포럼 개최

尖端技術과 知的所有權 관계

尖端技術이 知的所有權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포럼이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여개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特許廳과 世界知的所有權機構가 주관하고 UN개발계획(UNDP)의 후원으로 열린 국제포럼은 낙후돼있는 亞·太지역국가를 대상으로 尖端技術이 知的所有權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첨단기술보호정책수립관련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뜻을 두고있다. 이 포럼에서 토의된 주제발표를 간추려 싣는다.

컴퓨터技術과 著作權
욘 빙

〈노르웨이컴퓨터법률硏 이사〉

컴퓨터 기술을 포함한 정보기술에 의해 개발된 知的産物등은 어느 법에 따라 규정되며 보호돼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은 特許法上 發明이라는 개념과 著作權法上의 창작이라는 개념 모두를 포함하는 새로운 知的産物이다.

따라서 이들을 「産業著作權」으로 구분해 新知的所有權분야로 연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물론 각국에서 특별입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半導體설계도 이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産業著作權을 著作權에 포함시킬경우 보호의 한계 및 권리기간결정 등 사용자와 著作權者間의 윤리적차원에서 제기될 문제가 많다.

따라서 베른협약 등을 통해 이를 새로운 특별항목으로 채택, 새로운 知的所有權분야로 법령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복제및 通信기술
리처드 도넬리

〈美 조지워싱턴大 교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 및 知的財産의 복제 전송 조작이 아주 쉽게 이루어져가고 있다.

이에따라 著作權者가 자기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도 훨씬 많은 잠재적인 침해를 고려, 새로운 著作權諸道를 만들어 이에 대응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이같은 著作權侵害에 대처하기위해 복제를 허용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야 할 뿐아니라 대량으로 복제를 하는 복제업자 등에 대해 집중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본다.

이와함께 첨단 복제수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재장치 및 著作者의 보상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開途國 生命工學技術
사스트라프라자

〈印尼국립과학회 부회장〉

遺傳子를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시키는 生命工學技術이 최근 크게 발전하고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은 開發途上國의 경우 生命工學分野의 발전은 농업분야에서 두드러져 조직배양기술, 생물학적 질소고정기술뿐 아니라 나아가 DNA제조를 통한 새로운 식물창조기술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있다.

그러나 開途國들은 知的所有權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 분야 特許出願件數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開途國政府는 發明家個人뿐 아니라 공중의 이익까지 감안, 적절한 特許法을 마련해야한다.

인도네시아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 特許法에 대한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욱이 농업에 관한 生命工學特許出願者에게는 장려금까지 주고 있다.

물론 開途國의 生命工學産業은 先進國에 비해 저조하나 각국마다 자국중심으로 발달된 生命工學製品이 있으며 이는 전통농업과 연관,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尖端生命工學技術과 함께 이러한 전통기술도 知的所有權의 하나로 소중히 다루어지고 있다. 〈♣〉